

한국인의 성격유형에 따른 위험태도 분석 및 효용함수의 도출

강태건* · 조성구*

* 동국대학교 산업공학과

Abstract

호성을 알아내고 각자의 선호성이 개별적 또는 복합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예측함으로써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다. 의사결정자는 성격유형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자신이 갖는 우월한 기능은 무엇이고 열등한 기능은 무엇인지를 파악함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합리적이고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.

의사결정자의 성격유형이 의사결정 절차의 제 단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매우 타당성이 높아 보인다. 실제로 성격유형이 의사결정에 어떠한 구체적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실험적 연구는 다수가 있었고, 그 중 성격유형과 위험성향의 관계를 연구 대상의 하나로 포함시킨 경우도 있다 (Behling et al, Haley & Stump, Henderson & Nutt).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 가운데 전적으로 효용함수 도출을 목적으로한 경우는 별로 없었다. 또한 성격유형 관련 연구가 하나같이 서구의 피실험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들이어서 그 연구 결과를 문화적·사회적 배경이 틀린 한국인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도 의문점으로 남는다.

따라서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의사결정자의 성격유형에 따라 다른 효용함수가 존재하는가의 여부와, 성격유형으로 구별된 효용함수의 해석을 통하여 한국인 의사결정자의 판단 및 의사결정과정을 설명하고 서양의 효용함수에 대한 연구결과와 비교하는 것이다.

본 연구는 일반적 효용함수를 도출하는데 있어 성격유형이라는 구분을 통해 나타나는 효용함수의 특징을 찾아내고 일반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 효용함수를 도출하는데 성격유형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효용함수를 일반화하려는 이유는 다른 요인들은 의사결정자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가 다를 수 있고 특정의 편향을 갖는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. 이에 반해 성격은 의사결정자들을 공통적인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고 기타 다른 사회경제적인 변수들 즉, 의사결정자의 부의 정도, 교육수준, 연령, 직장에서

의 지위 등으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 효용함수 도출을 하는데 적합하다는 이점이 있다.

의사결정자의 성격유형과 효용간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실험을 통해 체계적으로 알아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.

한국인을 피실험자로 한 연구결과와 서양인을 피실험자로 한 연구결과를 비교해 보면 대체로 이익영역과 혼합영역에서 한국인이 더 위험추구적인 위험성향과 효용함수의 형태를 가지는 것을 발견하였다. 손해영역에 대한 실험 결과는 강한 위험추구성향을 띄는 볼록함수 형태의 효용함수를 나타내 기존의 연구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.

성격유형이 피실험자들의 위험성향과 효용함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험분석 결과 성격유형을 분류하는 요인 중 외향성(E), 직관형(N), 감정형(F) 기능은 위험추구적 성향을 그리고 이와 대립되는 기능인 내향성(I), 감각형(S), 사고형(T)기능은 위험회피적 성향을 크게 함을 알 수 있었다.

성격유형 분류 요인 중 작은 금액의 결과치를 가지는 문제의 경우 이익과 혼합영역에서 얻은 I 대 E, T 대 F의 확실등가를 비교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, 손해영역에서는 I 대 E의 비교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. 큰 금액의 결과치를 가지는 문제는 작은 금액에서 보다 통계적인 유의성이 적게 나타났는데 특이한 점은 이익영역 S 대 N의 확실등가 비교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강하게 나타난 점이다.

성격유형을 네 집단으로 나누어 위험추구성향의 크기 순으로 나타낸 것이 <표 1>에 나타나 있다.

<표 1> 위험추구성향 크기 순으로 분류한 네 가지 성격유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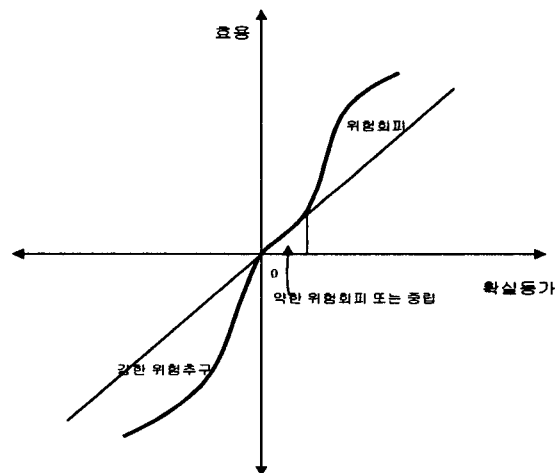
영역 \ 결과금액	작은 금액	큰 금액
이익영역	Group 1 : $ST \leq SF \approx NT$ Group 2 : NF	Group 1 : $SF \leq ST \leq NT$ Group 2 : NF
손해영역	Group 1 : $ST < NF < NT \approx SF$	Group 1 : ST Group 2 : $NT \leq NF \leq SF$
혼합영역	Group 1 : $ST \approx SF \leq NT$ Group 2 : NF	Group 1 : $ST < SF \approx NT$ Group 2 : NF

<표 1>에서 각 성격유형별로 확실등가의 중앙값들만을 단순 비교했을 때는 이익과 혼합영역에서 대체적으로 $ST \leq SF < NT \ll NF$ 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네 가지 성격유형 중 NF형의 성격은 다른 성격에 비해 위험추구성향이 강하게 나타났으며, ST형은 반대로 가장 위험회피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. 이것은 본 연구자들의 선행 연구인 「경마를 이용한 위험태도 분

석(한국경영과학회 학회지 제 21 권 2호 1996, “의사결정자의 성격유형과 위험성향”)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었다. 그러나 손해영역에서는 SF형의 성격이 다른 유형들에 비해 위험추구성향이 크게 나타나 기존 연구 결과와는 다른 결과를 얻었는데, 이것은 손해영역에서만 나타나는 특이한 결과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, 기존 연구들에서 찾아 볼 수 없었던 중요한 결과라고 여겨진다.

성격유형과 무관하게 한국인 피실험자들을 대상으로 한 효용함수를 도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.

한국인 피실험자들은 결과치의 금액이 작을 때 이익영역에서 약한 위험회피 또는 위험중립적인 효용함수 형태를 띄며, 손해영역에서는 강한 위험추구성향의 볼록함수형 효용함수를 나타내고 있음을 <그림 1>를 통해 알 수 있다. 이러한 효용함수 형태는 기존의 효용에 대한 연구결과와 비교하여 볼 때 이익영역에서 한국인 피실험자들이 서양인들에 비해 위험추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. 그러나 결과치 금액이 커질 때 위험회피 성향이 점점 뚜렷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. 반면 손해영역에서는 결과치 금액의 크기와 무관하게 위험추구성향이 뚜렷한 볼록한 효용함수 형태를 취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기존의 연구 결과와 같은 것이다.



[그림 5] 한국인의 일반적인 효용함수

본 연구의 결론은 가상의 의사결정 상황에서 얻은 결과를 분석하여 도출된 것으로 일반적 의사결정 상황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은 약간의 무리가 있을 것이다. 따라서 좀 더 현실에 가까운 다양한 의사결정 상황을 설정하고 피실험자의 계층도 다양화한 실험을 통해 유효성이 높은 연구 결과를 얻는 것이 차후의 과제가 될 것이다.